

김춘자 개인전 자라는 땅(Growing Earth)

작가 인터뷰

2020.08.10

“제 작품 전체를 망라하는 첫 대규모 전시라 설레고 행복합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땅’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청년들에게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어요.”

○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선생님의 작업에는 상상 속의 자연이 가득합니다.

제 나이 때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 산에 가서 계절 따라 피는 꽃도 보고 나뭇 잎이 떨어지고 새가 울고, 다시 새싹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컸어요. 겨울에는 얼음을 지치고 연 날리면서 시간을 보냈지요. 자연의 삼라만상이 제 심장과 크게 만났고 자연스럽게 제 안의 예술적 감각과 만나 그림 속에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선생님의 작업에 일관되게 흐르는 자연과 인간의 생명성을 다루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첫 아이를 가졌을 때는 몰랐던 태동이 둘째를 가졌을 때 강하게 느껴졌어요. 강력하게 느껴지는 살아있는 운동성이 제 작업의 모든 형상을 만들어 낸 근원이었던 같아요. 제 작업은 직선이 없고 구부러진 곡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태아도 씨앗도 모든 생명체는 둥글게 되어 있잖아요. 자연과 인간을 들여다보는 제 상상의 발전은 무한한 곡선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전시가 MZ 세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 주었으면 하나요?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제 작품을 보면서 숨 쉬는 존재, 생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음의 왕성한 생명력이 주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자연만이 무궁무진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임을 느꼈으면 합니다. 예술적 감동이란 ‘익숙한 감각의 궤도를 바꾸고 삶을 지배하는 욕망의 배치를 바꾸는 것’이라는 어느 평론가의 말처럼 제 작업이 ‘자연으로 체화되어 인간성 회복으로 가는 길’에 가이드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 최근의 작업은 인물 중심이고, 소리없는 절규같은 슬픔이 느껴집니다.

생명성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면서 자연을 식물, 동물, 땅에 국한 시켰어요. 인간은 인위적이라고 느껴 배제했지요. 어느 순간 자연과 너무 멀리 떨어진 나를 다시 자연 속으로 품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자연에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이 최근의 작업에 투영되고 있어요. 코로나 19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아동 학대에 관한 뉴스를 많이 보게됩니다. 저항할 힘이 없는 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무차별 학대와 방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슬픔을 가누기 힘들어요. 요즘은 훼손당한 비극적 생명에 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제 최근작에서 보이는 빨 달린 얼굴, 검은 눈물을 흘리는 얼굴 등은 현실에 저항하는 제 의지를 담고 있어요.